

## OECD DAC 동향

한국수출입은행 경험기획실 정책연구팀

### I. Development Issue

1. 중국, 2차 개발원조백서(Foreign Aid White Paper) 발표
2. OECD 2014 개발협력 보고서(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) 발간

### II. DAC 회원국 동향

1. 네덜란드, The Dutch Good Growth Fund 조성
2. 미국 USAID, Global Challenges for Development 프로그램 현황
3. 독일, 기후변화사업 지원예산 증대 발표



# I. Development Issue

## 1. 중국, 2차 개발원조백서(Foreign Aid White Paper) 발표

중국은 7월 10일 최근 3개년('10-'12)의 중국 원조 현황에 대한 내용을 담은 2차 개발원조백서(Foreign Aid White Paper) 발표

### 가. 중국의 원조 실적('10-'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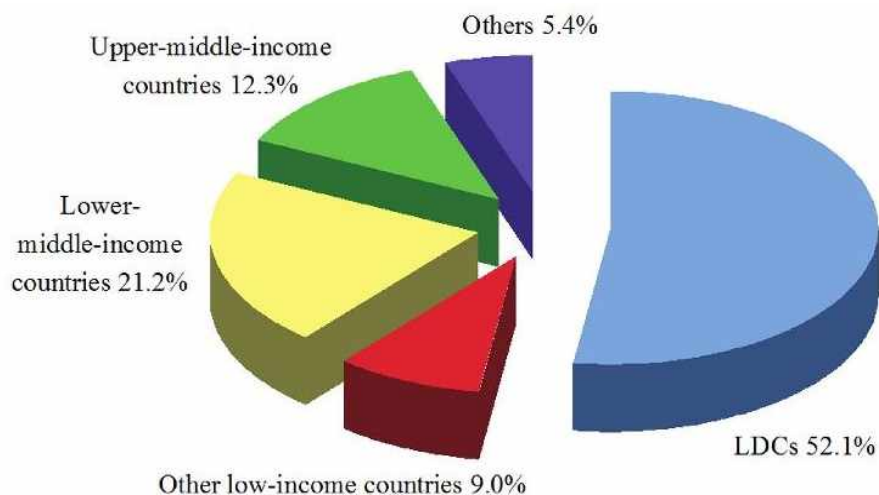
□ (원조규모) 3년 동안 총 900억 위안(15.2조원 상당) 지원

□ (원조형태) 증여, 무이자차관, 양허성차관 형태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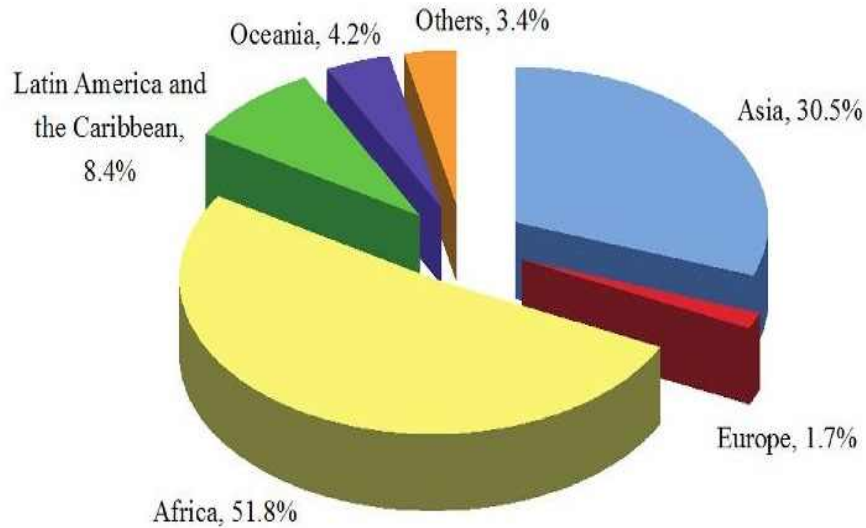
(억위안, %)

원 조 형 태	목 적	지원액	비 중
증 여 ( G r a n t )	중소규모 복지사업, 인적개발, 기술협력, 물자원조, 인도적 원조	333	36.2
무 이 자 차 관 (Interest-free Loan)	공공시설 구축, 주민생활 개선	70	8.1
양 허 성 차 관 (Concessional Loan)	제조업, 대규모 인프라사업, 플랜트, 기계 및 전자제품 공급	503	55.7
합 계		906	10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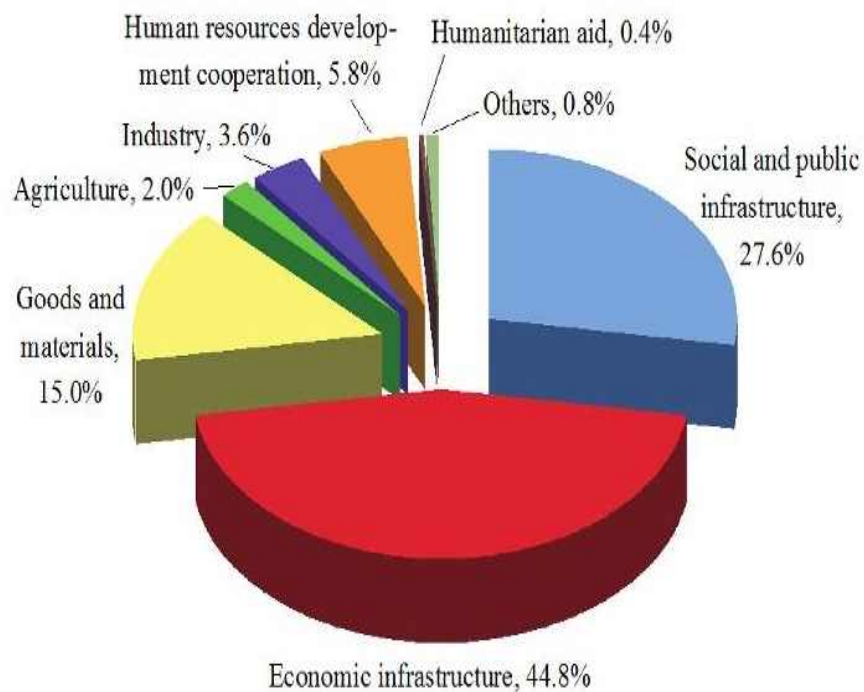
□ (소득그룹별 배분) 최빈국(52.1%), 하위중소득국(21.2%), 상위중소득국(12.3%), 기타 저소득국(9.0%) 順으로 지원



- (지역별 배분) 아프리카(51개국, 51.8%), 아시아(31개국, 30.5%), 중남미(19개국, 8.4%), 오세아니아(9개국, 4.2%), 유럽(12개국, 1.7%) 順



- (분야별 배분) 경제인프라(44.8%), 사회공공인프라(27.6%), 기자재(15%), 인적자원개발(5.8%), 산업(3.6%), 농업(2%) 順



## 나. 중국 원조의 목표별 지원 실적

중국은 (1) 주민생활개선(Helping Improve People's Livelihood)과 (2) 경제 및 사회개발 촉진(Promoting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)이라는 2대 목표를 설정하여 원조를 실시하고 있음

### (1) 목표-1 : 주민생활 개선

세부목표	지원 내역
① 농업개발 촉진	- 3년간 49건의 사업 진행, 전문가 1,000명 파견, 17개국에 농업 센터 건립, 7,000명의 수원국 공무원에 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 300회 제공
② 교육수준 향상	- 80건 이상의 교육시설 건립사업 지원, 수원국 교직원 및 공무원 1,000명 앞 교 프로그램 30회 제공, 수원국 학생 76,845 명에 장학금 지급
③ 의료 및 보건서비스 개선	- 약 80개 의료시설 건립 지원, 3,600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55개 팀을 120개 의료센터에 파견 - 2003년 개안수술 프로그램인 Brightness Trip 도입, 2010년에는 아프리카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1,000건 이상의 수술 지원
④ 공공시설	- 수자원 공급사업(29건), 주거지원 사업(80건), 문화, 스포츠, 공공 시설 건립 사업(86건)* 지원 * 가봉에 건립한 Angondje 축구 경기장(4만명 수용)이 대표적
⑤ 인도적 지원	- 12억 위안 상당의 구호물자와 3억 위안의 현금 지원 - '11-'12년 간 5.1억 위안 상당의 식량원조 제공

### (2) 목표-2 : 경제 및 사회개발 촉진

세부목표	지원 내역
① 인프라 개선	- 경제 인프라 사업 총 156건 지원 (교통 사업 70건, 에너지사업 20건, IT 관련 사업 지원 60건 등)
② 역량 강화	- 1,579회 세미나를 통해 40,000명의 수원국 공무원 초청, 10,000 명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훈련 프로그램 357회 진행 - 50개국에 전문가 및 봉사장 2,000명 파견 (명)

구 분	2010년	2011년	2012년
공 무 원	8,109	14,146	17,072
기 술 자	2,051	3,669	3,730
직 업 훈 련 생	80	132	147
합 계	10,240	17,947	20,949

③ 무역개발 촉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WTO의 Aid for Trade를 적극적으로 수용, 수원국에 무역 관련 인프라 및 수출 생산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최빈국의 WTP 가입 프로그램에 40만 달러 지원</li> <li>-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 적용, 2012년까지 5,000개 품목의 생산품에 면세 부여</li> </ul>
④ 환경 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8개국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 64건, 120여개국에 환경 관련 프로그램 150회 지원 및 개최</li> </ul>

## 다. 지역 및 국제협력

### □ 지역협력 매커니즘 하의 개발원조

#### ○ 新 중국-아프리카 전략 파트너십

- 2000년 중국-아프리카 협력포럼(Forum on China-Africa Cooperation, FOCAC) 협의체를 결성한 이래, 아프리카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
- (농업개발) 지난 3개년 간 14개 농업기술시범센터 건립, 5,000명 이상의 아프리카 농업기술자 교육 진행
- (인프라개발) 탄자니아-잠비아 철도 사업을 비롯, 86건 경제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국가 및 지역간 인프라 구축 협력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중국 기업 및 금융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
- (의료 및 보건 협력) 현재 42개국에 43개 의료팀 파견을 비롯, 총 8억 위안 상당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 제공
- (기후변화) 105개의 에너지 및 수자원 공급 사업을 지원하고, 2012년에는 자동기상센터 및 고도 관측소 설립을 통해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 지원

#### ○ ASEAN과의 실질적 협력 구축

- 2003년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후, 다자 채널을 통해 농업개발, 산업, 생산 및 인프라 사업 지원

- (농업개발) 2010년 포괄적 식량생산증대 계획(China-ASEAN Action Plan on Comprehensive Food Productivity Enhancement) 체결 후 20곳의 신품종 센터, 3개의 농업기술시연센터 건립 및 300명의 농업 전문가 파견

○ 기타 지역과의 협력

- 이 밖에도 포르투갈어권 국가, 카리브해 지역, 태평양 섬 국가들과의 경제무역 파트너십 체결

## □ 국제교류협력 참여

○ 다자기관과의 협력

- UNDP, UNIDO, UNICEF, UNFPA 등의 국제기구에 총 17.6억 달러 출자('10-'12)
- ADB, AfDB, IDB, CDB 등의 지역개발은행에 총 13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, ADB와는 빈곤 감축 및 지역협력기금(Poverty Reduc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Fund) 조성\*

\* 2005년 2천만 달러 출연 이래, 2012년까지 총 1.1억 달러 출연

○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

- 국제기구와의 프로그램 공동 주관, 개발 관련 컨퍼런스 참여 등 국제개발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며 특히 남남협력, 삼각협력에 주력하고 있음

## 라. 중국 원조백서 평가

- 중국의 개발원조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, 경제 및 사회개발 촉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,
- 사회, 경제 인프라 사업 등 기존의 하드웨어(인프라) 중심에서 벗어나 인적자원개발, 역량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

-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협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로운 전략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
- 3개년에 대한 총 원조예산을 제외하고는, 자금 흐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중국의 원조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

## 2. OECD 2014 개발협력 보고서 발간

### 가.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세계 경제의 변화

OECD DAC는 「중소득국의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생산성 신장 (Boosting productivity to meet the middle-income challenge)」을 주제로 개발협력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, 7월 2일 개최된 글로벌 개발포럼에서 주요 내용 발표

#### □ 세계 경제의 ‘부의 이동(Shifting Wealth)’

- 2010년 전 세계 GDP에서 OECD 비회원국의 비중이 OECD 회원국의 비중을 능가한 이래, OECD 비회원국의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
- 이러한 부의 이동은 중국, 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결과로 분석됨
  - '12년 중국과 인도는 전 세계 GDP의 약 1/4 차지
  - 전 세계 수출 및 수입의 약 20%는 BRICS가 차지했으며, FDI의 주요 대상국 및 투자국으로 각광받고 있음

#### □ 개도국의 생산성 감소와 ‘중진국 함정(Middle Income Trap)’

- 신흥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,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OECD 회원국의 소득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됨
  - 중국, 카자흐스탄, 파나마는 '50년까지 OECD 평균소득 도달이 예상되나, 브라질, 콜롬비아, 헝가리, 멕시코 및 대부분의 저소득국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



- 이는 개도국의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결과임
- 중진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50% 이하이며 총요소생산성 (Total Factor Productivity)은 미국 대비 30% 이하에 불과

## 나. 개도국의 생산성 증대 방안

### □ 고부가가치 분야의 다양화

- 개도국은 생산요소축적 중심의 성장을 겪어 왔으며, 최근 임금 상승 및 1차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냄
- 특히,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브라질, 인도네시아, 남아공, 러시아의 경우 2000년대에 이르러 산업 다양화보다는 자원 의존산업에 초점을 두어 상품가격 하락 등의 외부 충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

### □ 글로벌 지식 활용 및 국내 역량개발을 통한 혁신

-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, 무역 및 FDI 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국내 역량 및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
- 중국은 수입자본재를 통한 해외 지식활용 및 생산성 제고의 성과를 달성함
- 교육 및 R&D 투자를 통해 해외 기술의 국내 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역량을 증진시켜야 함

### □ 상품, 노동 및 금융시장 개혁과 기술 개발

- 기업들의 시장 진입 장려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교육과 기술 정책간 일관성 제고를 추구해야 함
- 개도국은 교육습득 정도에 비해 양질의 교육제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 수준 제고와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교육 간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



## □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

- 기업들의 시장 진입 장려를 위한 규제환경 조성과 교육과 기술 정책 간 일관성 제고를 추구해야 함

## □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

- 일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지니 계수가 증가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보다 포용적인 성장 전략 필요
-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 필요
- 이를 위해 능력있고 효과적인 정부가 필요하며 정부관료 훈련, 정부간 조율 매커니즘 마련,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이 요구됨

# II. DAC 회원국 동향

## 1. 네덜란드, The Dutch Good Growth Fund(DGGF) 조성

### □ 개 요

- (목적)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네덜란드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네덜란드가 선정한 66개 개도국 내 현지 기업의 사업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함
- (기금 규모) 무역 및 개발협력 예산(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Budget)으로 배정되어 2017년까지 총 7.5억 유로\*의 기금 조성 예정
  - \* 중소기업 차관, 투자펀드, 수출신용보험의 세 가지 부문으로 운용하여 각각 1.75억 유로의 기금(총 5.25억 유로)을 조성하고 나머지 기금(2.25억)은 향후 중간평가를 통해 각 부문에 차등 지원
- 기금과 별도로, 민간부문개발예산(private sector development budget) 으로부터 75백만 유로 규모의 기술 지원 자금 배정

- 지원 신청 및 접수는 네덜란드 기업 에이전시(Netherlands Enterprise Agency: RVO)\*로 일원화하고, 각 부문 별 담당 기업 및 기관 지정

\* 2014년 설립된 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으로, 사업 보조금 지원, 컨설팅 서비스 제공

## □ 지원 부문

### ① 중소기업 차관 (담당 : RVO)

- (대상) 개도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네덜란드 국적의 중소기업
- (지원 내용) 최대 1천만 유로까지 신청가능하고, 보증과 협조 용자 방식으로 차관 및 지분투자 지원

### ② 투자펀드 (담당 : PwC와 Triple Jump의 공동 컨소시엄)

- (대상) 개도국 현지 중소기업, 그 중에서도 청년, 여성 기업가 및 취약국 소재 기업에 중점을 둠
- (지원 내용) 개도국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를 위해 중개펀드(intermediary fund)를 조성하여, 투자사업 한 건당 부문별 기금 총액(1.75억)의 10%까지 지원

### ③ 수출신용보험 (담당 : Atradius Dutch State Business\*)

\* 자본재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에 보험, 보증을 제공하는 네덜란드 수출신용기관

- (대상) 수출신용보험 없이 기존 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네덜란드 수출 기업
- (지원 내용) 자본재 수출과 연계된 지불위험 보상을 위해 최대 1,500만 유로의 보험 커버리지(insurance coverage) 제공
  - 또한 개도국 현지은행으로부터 수출거래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현지 바이어를 지원하기 위해, 네덜란드 수출기업의 명의로 최대 200만 유로 신청 가능

## 2. 미국 USAID의 Global Challenges for Development(GCD) 프로그램 현황

### □ 개념 및 도입 취지

- 미국원조청(USAID)이 2011년 도입한 프로그램으로서 경쟁 방식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를 개도국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목적으로 시작됨

### □ 시행 현황

- 2011년 도입 후 다음의 5가지 프로그램 선정 :
  - ① 모자 보건(Saving Lives at Birth, 2011)
  - ② 아동 교육(All Children Reading, 2011)
  - ③ 농업 기술(Powering Agriculture, 2012)
  - ④ 정보공개강화(Making All Voices Count, 2012)
  - ⑤ 물관리(Securing Water for Food, 2013)
- 개도국의 문화·정치·환경적인 면들을 고려한 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가진 비영리 단체, 대학 및 연계기관들로부터 제안서(RFA) 접수(총 2,000건 이상)하고 84개 단체를 선정하여 10만-2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제공
- 양자 파트너, 민간부문, 재단 등을 통해 1억 2,400만 달러의 외부 기금 조성

### □ 공모 부문별 프로그램 개요

- ① 모자보건(Saving Lives at Birth) <http://www.savinglivesatbirth.net>
  - USAID, 노르웨이 정부, 빌 & 멜린다 게이트 재단, 그랜드 챌린지 캐나다, 세계은행 및 영국 DfID 참여
  - 개발도상국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관련, 다음의 분야에 주목

- 출산 시 모자의 문제를 예방 또는 발견, 치료하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, 출생 시 높은 수준의 케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, 임산부와 보호자의 격려와 참여 등

② 아동교육(All Children Reading) <http://www.allchildrenreading.org>

- USAID, 월드비전 및 호주 정부가 개발도상국에서 저학년 어린이의 독해능력 향상을 위한 과학과 기술에서 창조와 혁신 유도에 목적을 두고 2011년 착수

**(참고) 아동교육(All Children Reading) 공모전의 예**

\* 2차 공모전 (Round 2로 '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)

☐ 독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을 위해 600만 달러 상당의 보조금 (Grant) 및 포상금(Prize) 제공

- Grants 분야 : 모국어 지도와 읽기 자료/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/ 장애아동 읽기 능력 향상
- Prize 분야
  - Prize 1 : Enabling Writers' Prize - 저학년 아동들의 모국어 학습 소프트웨어 개발에 90만달러의 상금 수여
  - Prize 2 : 글로벌 읽기 자료 저장소 - 개도국 저학년의 자료 접근성 증대를 위해 인쇄 저장소 구축

☐ 자금조달 방법

- 빌 &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45만달러 기금으로 조성한 11개국 컨소시엄인 『Beyond Access 이니셔티브』와 파트너십 체결

③ 농업기술(Powering Agriculture) <http://www.poweringag.org>

- 혁신적인 청정에너지 기술과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통해 농업에서의 전기에너지 장벽 극복
- 생산, 가공 및 비축에서 혁신을 장려하고 청정에너지를 통해 생산 식량의 질을 개선하고 농업사회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조

④ 정보공개강화(Making All Voices Count) <http://www.makingallvoicescount.org>

- 시민의 사회 참여와 정부의 대응력 증대를 목적으로,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에 주력

⑤ 물관리(Securing Water for Food) <http://www.securingwaterforfood.org>

- USAID와 스웨덴 정부가 참여하고, 식량가치사슬에서의 물부족 해결 위해 물의 재사용과 효율성, 물의 포집과 저장, 염분 제거 등의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춘 기술 연구 진행

### 3. 독일, 기후변화사업 지원예산 증대 발표

- ☐ Barbara Hendricks 독일 환경부 장관과 Gerd Müller 개발부 장관은 7월 2일 개최된 “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- seizing opportunities worldwide” 행사에서 향후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 사업에 18억 유로를 지원할 것을 발표
- ☐ 지원액의 90%는 경제협력개발부(BMZ)를 통해 조달되며 지원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및 효율성, 수자원개발, 취약 인프라시설 보호 등이 해당
- ☐ 본 계획은 BMZ가 오늘 11월 24일 발간 예정인 개발협력 현장 “ONE WORLD - Our Responsibility”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으며, 향후 기후변화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됨